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국제부

발 신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국내 사무국: 공익법단체 두루 최초록 02-6200-1916, crchoe@duroo.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010-3332-5733, sikang@hopeandlaw.org)
(출장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지윤 010-2533-1807, kangji@kpil.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010-4150-4347, chaewan.s@minbyun.or.kr)

제 목 [보도자료] 한국 NGO 대표단, 시설수용 피해자들과 함께 유엔 본부 앞에서 한국의 인권후퇴 상황 규탄

날 짜 2024. 07. 10. (총 4쪽)

보 도 자 료

한국 NGO 대표단, 시설수용 피해자들과 함께 유엔 유럽 본부 앞에서 한국의 인권후퇴 상황 규탄

- 일시: 2024. 7. 9. (화) 17:00(한국시간)
- 장소: 팔레 데 나시옹 앞
- 과거와 현재의 시설수용 피해자들 사과 및 시설수용중단 촉구
- 한국NGO 대표단, 한국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엄격 준수 촉구

1.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이하 ‘대응모임’)은 2024. 7. 9.(화) 17:00 (제네바 현지시간 10:00) 유엔 유럽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 앞에서 <후퇴하는 인권, 대한민국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을 규탄한다>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2024. 7. 8.(월)에 개최한 <시설수용, 한국의 끝나지 않은 고문: 사과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목소리> 사이드이벤트에 이어진 두번째 공개 활동입니다.

2.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는 부산 최대 규모의 부랑인 시설인 영화숙·재생원에 수용되어 각종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손석주 대표는 아동의 피해를 외면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는 정부가 현존하는 시설의 문제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박경인 공동대표는 더이상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수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4. NGO 대표단은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사퇴’, ‘국가폭력 사퇴’, ‘젠더폭력 근절’,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촉구’, ‘이주아동 구금금지’ 등 다양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한국의 인권상황 후퇴를 규탄했습니다. NGO 대표단은 특히 시설수용 문제가 이번 10일, 11일에 예정된 제6차 고문방지협약 심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제6차 고문방지협약 심의는 2024. 7. 10.(수) 10:00(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시간 17:00)에 시작합니다. NGO 대표단과 시설수용피해자들은 2024. 7. 10.(수)부터 11.(목)까지 양일간 이뤄지는 심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4.9통일평화재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익법센터어필, 공익법단체두루,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군인권센터,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노란들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총 26개 단체)

★ NGO 대표단 명단 (가나다순) : 4.9통일평화재단,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영화숙·재생원피해자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포럼

▣ <후퇴하는 인권, 대한민국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을 규탄한다> 집회 사진



